

우리 딸들의 밝은 새얼굴을 연다

한국여성재단-팩스통신

수신	박영숙 이사장님 (F.031-816-2845)
발신 (연락처)	배분 팀 김지혜 Mobile: [REDACTED] E-mail: [REDACTED]
발신일	2007년 8월 14일 (오후 6시)
제목	여성단체연합 영상촬영 내용
요청사항	
내용요약	2007년 8월 17일 (금) 오후 2:00 장소: 한국여성재단 촬영내용 및 시간: "여성연합, 이로서 좋다"라는 주제로 15초의 멘트 비고: 8월 30일 [여성연합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집의 아름다운 콘서트]에서 상영할 축하영상입니다.
기타(비고)	표지 포함 총 1 page 입니다.